

장애아동 부모의 직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장애아동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on Parenting Stress

김덕주*, 용미현**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경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Deok-Ju Kim(dj7407@hanmail.net)*, Mi-Hyun Yong(yongmihyun@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도,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직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였으며, 설문지 7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직업수행능력 측정도구, 여가만족을 묻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장애아동이 여자이며, 연령이 8~12세인 학령기인 경우,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와 지적장애인 경우, 장애등급이 1, 2급인 경우, 치료기관이 병원과 사설치료기관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 부모의 직업수행능력, 양육스트레스, 여가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직업수행능력 항목 중 작업, 사회적 통합, 경제적 자립과 여가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들은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직업수행능력 | 여가만족 | 양육스트레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n parenting stress in parents with disabled children.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anuary 10, 2017 to February 17, 2017, and 7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earch tool wa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comprised the following components: general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 parenting stress measurement tool,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tool, and leisure satisfaction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high parenting stress were as follows: female, age 8-12, develop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y, disability grade 1 and 2, in the case of private treatment institution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parenting stress, and leisure satisfaction. Occupation, social integration, and economic independence, and leisure satisfaction were the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parenting stress intervention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 keyword : |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y | Leisure Satisfaction | Parenting Stress |

I. 서론

2014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이며, 이 중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수는 약 8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 등록자 중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장애인 수가 급증하게 된 요인에는 선천적인 요인과 더불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2]. 장애아동은 장애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학습능력 및 사회생활 적응기술의 저하로 인하여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다[3]. 장애아동들은 대부분 운동장애, 감각기관의 손상, 정서적인 중복장애, 주위산만 등의 조건들로 인해 실제 능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들의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집단인 가정에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정립과 이차 기관의 특별한 치료, 교육, 훈련 등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4].

부모로서 자녀의 출생은 기쁜 일이지만 부모역할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비 장애아동 부모와는 다른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5].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을 둔 가정과 장애아동을 두지 않은 가정을 비교한다면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에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6]. 이러한 이유는 비 장애 아동의 양육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7]. 장애아동의 양육은 가족 내 위기를 초래하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특히, 장애아동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만성화, 심화되는 경향으로, 이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된다[8]. 이처럼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9].

자신의 역할에 적합하고 역할수행을 위하여 실행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작업(occupation)’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작업이란,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모

든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인간은 작업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작업적인 존재(occupational being)로 인식되며,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의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만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0]. 작업의 종류에는 일상생활활동, 휴식과 수면, 교육, 일, 놀이, 사회참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작업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작업수행(occupational performance)’이라고 한다.

일상생활활동은 자신의 신체를 돌보기 위한 활동으로, 사회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 준다[11]. 휴식과 수면은 회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다른 작업영역들에서 건강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2]. 교육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학습과 참여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수가 있는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13]. 사회참여란 행동의 조직화된 형태로, 사회체계 안에 개인이나 주어진 위치에 대한 기대 혹은 특징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이웃, 기관, 직장, 학교)에서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가족으로써 기대되는 역할에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기 등이 포함된다[12]. 여가는 자유 시간에 하는 내재적으로 동기화 되어있는 비의무적 활동을 말한다. 여가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발달시킨다[14]. 여가만족이란 여가의 역할 및 가치에 의해 여가활동 참여로 개개인이 갖는 인식이나 감정상태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할 때 증진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행복추구, 건강유지 및 증진에 효과적이다[15]. 하지만 장애아동 부모는 자녀의 교육이나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여가생활이 쉽게 소외될 수 있으며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1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가활동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17]. 유사한 연구결과로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27].

장애아동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양한 영역의 작업을 수행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그러므로 작업수행과 여가생활 참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까지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 등의 감정적인 부분 혹은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작업의 수행 유무와 여가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장애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도,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 소재 I 병원과 E 병원, C 시 소재 P 발달센터 내의 치료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였다. 표본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수검정을 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작업수행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는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부모님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74명의 부모님에게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부모님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최종적으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응답을 한 2명을 제외하고 총 7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작업수행능력 측정도구, 여가만족을 묻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8]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를 김효진[2]의 연구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755였다. 스트레스 내용에 따라 4개 영역 즉, 경제적 스트레스 5문항으로 Cronbach's α .931, 신체적 스트레스 5문항으로 Cronbach's α .903, 심리적 스트레스 5문항으로 Cronbach's α .742, 사회적 스트레스 5문항으로 Cronbach's α .842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여 총 스트레스 점수를 산출하였다. 전체점수는 최하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수행능력은 Craig[19]가 개발한 핸드캡 평가보고(Craig Handicap Assessment and Reporting Technique)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970이었다. 이 도구는 6가지 영역, 1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하위항목으로는 신체적 자립, 인지적 자립, 이동, 작업, 사회통합, 경제적 자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은 최소 0-100점으로 측정되며, 0점의 경우 전체적인 영역에서 참여제한이 있다는 의미이며, 100점일 경우 참여제한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여가 설문지는 고영태[17]와 김구리[18]의 논문에서 사용된 여가만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6, 타당도는 .819였다. 여가만족을 묻는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여 총 여가만족점수를 산출하였다. 전체점수는 최하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양육스트레스, 작업수행능력, 여가만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2)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3)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수행능력, 양육스트레스, 여가만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4)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장애아동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장애아동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72.2%)가 더 많았고, 연령은 31~40세(50.0%), 41~50세(43.1%), 51세 이상(4.2%) 순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55.6%)가 대다수였으며, 개인사업(16.7%), 사무직(15.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졸업(45.8%)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97.2%), 자녀수는 1명(45.8%)과 2명(44.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양육비는 월 30~60만원(56.9%)이 가장 많았으며, 양육시간은 11~14시간(27.7%), 7~10시간(25.0%), 3시간 미만(19.4%) 순으로 나타났다[표 1].

1.2 장애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장애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66.7%)가 더 많았으며, 나이는 4~7세(58.3%)가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은 뇌병변(50.0%), 발달장애(23.6%), 발달지연(13.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1급(45.8%), 3급(20.8%), 2급(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치료받는

기관은 병원(52.7%)이 가장 많았다[표 2].

표 1.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0	27.8
	여자	52	72.2
연령	20-30	2	2.8
	31-40	36	50.0
	41-50	31	43.1
	≥51	3	4.2
직업	생산직근로자	3	4.2
	공무원	3	4.2
	사무직	11	15.3
	의사 등 전문직	3	4.2
	개인사업	12	16.7
	전업주부	40	55.6
최종학력	고등학교	31	43.1
	전문대학	8	11.1
	대학교	33	45.8
결혼상태	결혼 유지	70	97.2
	이혼	2	2.8
자녀 수	1	33	45.8
	2	32	44.4
	3	2	2.8
	≥4	5	6.9
매월 양육비 (₩10,000)	≤10	7	9.7
	10-30	16	22.2
	30-60	41	56.9
	60-100	3	4.2
	≥100	5	6.9
양육시간	≤3 시간	14	19.4
	4-6 시간	9	12.5
	7-10	18	25.0
	11-14	20	27.7
	≥15 시간	11	15.4

표 2. 장애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4	33.3
	여자	49	66.7
연령	≤3세	18	25.0
	4-7세	42	58.3
	8-12세	6	8.3
	≥13세	6	8.3
장애유형	발달장애	17	23.6
	발달지연	10	13.8
	뇌병변	36	50.0
	지적장애	3	4.2
	기타	6	8.4
장애등급	1급	33	45.8
	2급	13	18.0
	3급	15	20.8
	기타	11	15.4
주로 치료받는 기관	병원	38	52.7
	복지관	9	12.5
	사설치료기관	25	34.8

인지적 자립(3)	.041	-.033	1											
이동(4)	.016	.032*	-.026	1										
작업(5)	.242*	.025	-.057	-.055	1									
사회적 통합(6)	.837**	.152	.011	.058	.169	1								
경제적 자립(7)	.822**	.276*	.099	-.028	.232	.481**	1							
양육스트레스 총점(8)	-.575**	-.267*	.046	-.232	-.221	-.429**	-.559**	1						
경제적 스트레스(9)	-.587**	-.252*	.061	-.130	-.365**	-.359**	-.643**	.890**	1					
신체적 스트레스 (10)	-.553**	-.222	.041	-.193	-.291*	-.349**	-.600**	.939**	.858**	1				
심리적 스트레스 (11)	-.449**	-.162	.007	-.269*	-.034	-.417**	-.321**	.855**	.634**	.685**	1			
사회적 스트레스 (12)	-.418**	-.320**	.053	-.250*	-.035	-.405**	-.365**	.853**	.591**	.772**	.731**	1		
여가만족 (13)	.340**	-.013	.063	.026	.243*	.149	.420**	-.249*	-.325**	-.281*	-.152	-.081	1	

p<.05, **p<.01

5. 부모의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분석 모형 설명력 R²의 값은 43.6%(Adjusted-R²=37.4%)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060, p<.001).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작업(β=-.223, p<.05), 사회적 통합(β=-.248, p<.05), 경제적 자립(β=-.398, p<.01), 여가만족(β=-.249, p<.05)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자립, 인지적 자립, 이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P
	B	Std.Error	Beta(β)	
신체적자립	-.238	.548	-.046	.666
인지적자립	.430	.573	.071	.456
이동	-.462	.244	-.221	.062
작업	-1.270	.571	-.223	.030
사회적 통합	-.194	.089	-.248	.033
경제적 자립	-.459	.149	-.398	.003
여가만족	-.444	.206	-.249	.035

독립변수: 양육스트레스
R²=.436, Adjusted R²=.374, F(ρ)=7.060***(.000)

IV. 논의

장애아동의 양육은 장애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돌봄에서부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른 치료 뿐 아니라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19].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작업수행능력, 여가만족을 살펴보고, 각 영역들의 상관관계 및 부모의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장애아동이 여자이며 연령이 8~12세 학령기인 경우,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와 지적장애인 경우, 장애등급이 1,2등급과 같이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기관이 병원과 사설치료기관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 아이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김정자와 오명화(2015)[2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기자(2016)[24]의 연구에서 장애아동이 초등생인 경우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장애등급이 1,2등급인 경우가 3등급인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양육스트레스는 장애등급이 높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심리 및 정서적, 신체적, 교육, 치료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하여 장애가 심할수록 양육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학령기 아동 중에서도 특히, 저학년에 해당하는 장애아동(8~12세)의 부모가 고학년에 해당하는 장애아동(13세 이상)의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은호와 김미경(2009)[2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입학 후 통합교육에 대한 두려움과 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에 대한 염려로 저학령기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발달을 보이고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또래 아이들과 비교 시 많은 부분에 지체를 보여서 불안해한다. 또한 아동의 진로와 장래에 대해 걱정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다[26].

둘째,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수행능력, 양육스트레스, 여가만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았고, 작업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이경호와 강정화(2008)[27]에 의하면 여가활동을 하는 장애아동 부모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아동 부모보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여가활동을 하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김지연(2011)[17]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 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김효진(2015)[28]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만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대상이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부모보다 치료에 부담이 적고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현석과 하규수(2015)[6]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에서 작업수행 중 사회적 통합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장애아동부모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이나 보육 문제로 인한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 바 있다[27]. 이 또한, 경제적 자립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에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시간을 위해 장애아동 보육시설, 주·단기 보호시설이나 복지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기구 구입비, 교육이나 보육비 지출 등은 여가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여 교육비를 절감하고 사회적 지원과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도적인 정책수

립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작업수행능력 중 작업, 사회적 통합, 경제적 자립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만족도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립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김정자와 오명화(2015)[23]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장애아동 양육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장애아동들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만성적인 질병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 사설 치료기관의 수업료가 고액이므로 장애아동 부모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결론적으로,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하여 가족의 지지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장애아동 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장애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족은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자원이다.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가 대부분 어머니이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하다[29]. 부모상담, 병원진료, 학교 교육 등에 남편을 참여시켜 양육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남편의 이해와 협조는 어느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이 되며 정신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다[26].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를 위해 양육기술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상담 또한 매우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제도적으로도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며 장애아동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더욱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공적지지는 긴장된 환경과 위기적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부모의 양

육부담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감과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이다. 소득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아동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24]. 장애아동의 교육환경에서는 편견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방법을 알리고 치료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6].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부터 병원의 의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등 아동의 교육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과 유기적인 협조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수행능력, 여가만족, 장애아동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 각 영역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장애아동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작업수행능력, 여가만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작업수행능력 중 신체적 자립, 사회적 통합, 경제적 자립이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통합, 경제적 자립, 여가만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추후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대상자들을 임의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장애아동 부모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장애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비교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추후에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최복천,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2] 김효진,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만족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 조인숙, 류현숙, “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제21권, 제1호, pp.46-54, 2015.

[4] 조미림, 김덕주, 양영애, “장애아동 부모가 선호하는 작업치료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1-14, 2015.

[5] M. J. Hanson and M. F. Hanline, “Paren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Vol.14, pp.234-248, 1990.

[6] 이현숙, 하규수, “장애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6권, 제11호, pp.8046-8056, 2015.

[7] 김수정, “장애아동 어머니의 영성이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 *교회사회사업*, 제16호, pp.7-35, 2011.

[8] 이재혁, 김희영, 이종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12, 2007.

[9] 이현지, 김우호, “장애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5권, 제3호, pp.131-153, 2011.

[10] B. P. White, S. Mulligan, and K Merrill,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or and process skills and scores on the sensory

profil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61, No.2, pp.154-160, 2007.

[11] S. Klein, I. Barlow, and V. Hollis, “Evaluating ADL measure from an occupational therapy perspective,” *Canadian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Vol.75, No.2, pp.69-82, 2008.

[12] W. Nurit and A. B. Rest,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the phenomenon,”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Vol.10, pp.227-238, 2003.

[13] L. Jennifer, *Clinical decision making: Case studies for the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t*, Delmar, 2011.

[14] L. D. Parham and S. L. Fazio, *Play in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Mosby Elsevier, 2008.

[15] 임변창, 김홍설,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35권, 제4호, pp.4480-4491, 1996.

[16] 정주영, 정철, 이훈, “장애아 부모의 여가적응 과정,”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2011권, 제7호, pp.423-444, 2011.

[17] 김지연,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여가활동과 양육스트레스*,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8] Abidi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9, pp.298-301, 1990.

[19] G. Carig, *Craig handicap assessment and reporting technique*, Craig Hospital, 1992.

[20] 고영태, *대학생들의 여가 유형별 여가참여 및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1] 김규리, *근로자의 건강수준과 여가활동*,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2] 박연숙, *자녀의 자폐적 특성에 따른 부모 간 스트레스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3] 김정자, 오명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 *제9권, 제1호*, pp.187-196, 2015.

[24] 남기자, *장애아동 특성,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25] 노은호, 김미경, “초등부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제9권, 제4호, pp.95-112, 2009.
- [26] 김윤아,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7] 이경호, 강정화,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47권, 제3호, pp.119-135, 2008.
- [28] 김효진, 장애아동 부모의 여가만족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9] 양심영, 학령 전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280-293, 2014.

저자 소개

김 덕 주(Deok-Ju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한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학석사)
- 2015년 8월 : 인제대학교 재활과학과 작업치료전공(이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작업치료, 장애인재활

용 미 현(Mi-Hyun Yong)

정회원



- 2011년 8월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석사)
- 2017년 8월 : 인제대학교 재활과학과 작업치료전공(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 및 노인작업치료, 인지재활